



KWC 2022 수상 와인 릴레이

호주 II

한국 와인 시장을 두드리는 신대륙 국가들의 공세가 매섭다. 코리아와인챌린지(KWC) 2022에 참여한 신세계(New World) 나라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메달을 수상하며 저력을 보여준 호주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쉬라즈로 유명하다. 이번 KWC에서는 레드와인 뿐만 아니라 화이트, 스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 호에 이은 KWC 호주 특집 기사를 통해 호주 주요 산지와 수상와인을 만나보자.

글 임효진 사진 및 자료 제공 장영수, 각 와인너리, 수입사, (Wine Review) 편집팀, Unsplash

호주 주요 와인 산지

HUNTER VALLEY 헌터 밸리

헌터 밸리는 호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와인 산지 중 하나이다. 19세기 초에 심어진 최초의 와인 지역 중 하나로서 호주 와인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헌터 밸리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포도밭 대부분은 남부 계곡과 브로큰백 산맥의 산기슭에 있다. 이곳은 대부분 부드럽게 경사진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외는 세스녹 마을의 서쪽에 있는 마운트 뷰의 포도밭이다. 어퍼 헌터의 지형은 굴변강과 헌터강의 다른 지류가 흐름에 따라 눈에 띄게 평평하다. 호주 와인 중 독특한 세미용은 이 지역의 상징적인 와인으로 널리 여겨지고, 그 밖에도 쉬라즈, 샤르도네, 까베르네 소비뇽, 베르델류 등 다양한 포도의 와인을 생산한다.



헌터 밸리의 자연 풍경 ▲

MARGARET RIVER 마가렛 리버

마가렛 리버는 서호주 남서부의 주요 와인 지역으로 주로 부티크 와인 생산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기후는 다른 주요 호주 지역보다 해양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는데, 강수량 측면으로 보면 현저한 지중해 기후를 가지고 있다. 토양은 용기현상의 영향으로 화강석이 퇴화하면서 조성된 철분과 자갈이 많은 양토로 되어있다. 이 지역은 호주 전체 포도 생산량의 3%만 생산하지만, 호주 프리미엄 와인 시장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와인 산지다. 주요 포도 품종은 레드와 화이트로 상당히 균등하게 나뉜다. 레드는 까베르네 소비뇽, 쉬라즈, 메를로가 있고 화이트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세미용, 슈냉 블랑, 그리고 베르델류가 있다.



▲ 마가렛 리버 풍경



▲ 맥라렌 베일 포도밭

MCLAREN VALE 맥라렌 베일

맥라렌 베일은 남부 호주의 이름난 와인 산지의 하나이다. 알고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성 기후를 띤다. 햇살은 전체적으로 잘 드는 편이지만, 일조량, 고도 그리고 바다 입구에서 부는 바람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다양한 기후를 보인다. 이러한 기후 덕분에 미디움 바디의 레드 와인인 그르나슈의 호주 최대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곳의 주요 품종으로 화이트에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그리고 레드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그르나슈, 메를로가 있다.



▲ 아라 밸리 자연 풍경

YARRA VALLEY 아라 밸리

멜버른(Melbourne) 북동쪽 가까이에 있는 아라 밸리는 1838년 예링역의 포도원을 시작으로 빅토리아 최초의 와인 지역이다. 50~400m사이의 여러 고도와 국지적으로 가파른 경사면이 있는 밸리의 지형으로 대부분의 와이너리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서늘하고 습기가 많은 기후와 포

도 재배에 알맞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북쪽은 점토질과 모래로 된 진흙, 남쪽은 화산성의 붉은 흙으로 되어있다. 아라 밸리는 스파클링 와인과 양질의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로 유명하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빚은 스파클링 와인은 세련되고 시원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샤르도네는 일반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다른 것들보다 신선하며 향이 좋다. 또한 피노 누아는 붉은 과일 향과 함께 향신료 향이 나면서 매우 청량하다.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아라 밸리 포도밭



LANGHORNE CREEK 랑혼 크릭

랑혼 크릭은 전통적으로 뛰어난 까베르네 소비뇽과 쉬라즈의 생산으로 잘 알려진 레드 와인 재배 지역이다. 남부 호주의 프레류(Fleurieu)에 속하는 와인산지로서 1860년에 처음으로 포도나무가 식재된 유서 깊은 곳이다. 그러나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지내오다 1970~1980년대 윌프 블라스(Wolf Blass), 올란도 윈담(Orlando Wyndham) 등의 집중적인 투자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입지가 남대양에 면해 있어 수확기에 알렉산드리아 호수를 거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 연 강수량은 410mm, 겨울과 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며 여름을 위해 관개는 필수이다. 토양은 충적토가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샤르도네, 베르델류, 까베르네 소비뇽, 쉬라즈 등이 재배된다.

랑혼 크릭 포도밭 ▶



2022 수상 와이너리 II

Langmeil

랑메일

바로사 밸리에 있는 랑메일은 1842년 종교의 자유를 위해 독일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티안 아우리치트(Christian Auricht)가 수도원 형태로 세운 곳이다. 그의 유산으로 남겨진 쉬라즈 포도밭은 19세기에 유럽의 포도밭을 초토화한 필록세라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쉬라즈 나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최소 35년에서 많게는 170년이 넘는 올드바인을 섬세하게 관리하여 복합적인 풍미를 가진 와인을 양조한다. 수입사 레방드메일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Blacksmith Cabernet Sauvignon

BRONZE Blockbuster Shiraz



랑메일의 올드바인

메탈라 빈야드 로고



Metala Vineyards

메탈라 빈야드

메탈라 빈야드는 가이(Guy)와 리즈 아담스(Liz Adams)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브라더스 인 암스 와이너리도 함께 운영한다. 메탈라 빈야드의 대표적인 브랜드 킬리빙빙(Killibinbin)은 호주 원주민어로 '빛이 난다'라는 뜻으로 와인 잔에서 와인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며 이 말을 와인 이름에 붙였다. 킬리빙빙 시리즈는 일곱 가지의 레드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와이너리는 랑훈 크릭을 넘어 해외의 와인 시장에도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Killibinbin Sneaky

Mcguigan

맥기건

설립자 오웬 맥기건(Owen Mcguigan)은 1880년에 헌터 밸리의 땅을 사들인다. 1970년대 초, 맥기건 와인은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와이너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신선한 접근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펼친다. 그 결과 호주 자국내는 물론 다양한 수출 시장에 맥기건 와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헌터 밸리를 이어 바로사 밸리, 랑훈 크릭 등 호주의 와인 산지에 양조 사업을 확장시켜 현대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와이벨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Handmade Langhorne Creek Shiraz



맥기건 와인



모람브로의 포도밭

Morambro Creek Wines

모람브로 크릭 와인

모람브로 크릭 와인즈 아틀레이드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는 패더웨이 밸리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자리 잡은 이들은 비옥한 테라 로사 토양에서 친환경적으로 포도를 재배하여, 낮은 수확량으로 높은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와이너리 소유주인 브라이슨(Bryson) 가족은 1851년부터 일관된 품질과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클래식한 부띠끄 와인을 만들고 있다. 수입사 T&E Terroir Inc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Morambro Creek Cabernet Sauvignon

Schild Estate Wines

실드 이스테이트 와인즈

벤(Ben)과 알마 실드(Alma Schild)는 1952년 바로사로 이주해, 스테인가르텐 로드(Steingarten Road) 위쪽에 있는 포도밭을 매입했다. 4년 뒤 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6살 어린 나이의 아들 에드가 가산을 맡아야 했다. 어려운 시기에도 있었지만, 이제 실드 이스테이트는 바로사 밸리에서 가장 넓은 포도밭을 소유한 가족 경영 와이너리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450에이커의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수령이 170년 된 오래된 쉬라즈 포도나무도 있다. 바로 이 나무로 아이콘 와인 무루루(Moorooroo) 쉬라즈 와인을 빚는다. 수입사 WS통상

수상 와인리스트

GOLD Schild Narrow Road

CEO
Sue Henderson



세인트할렛 와이너리



St. Hallett

세인트할렛

바로사의 터줏대감 세인트 할렛은 바로사에서 가장 먼저 와인을 양조한 와이너리 중 하나이다. 와이너리의 헤드 와인메이커 스투어트 블랙웰은 바로사 와인 메이커들이 존경하는 와인메이커로 손꼽히는데, 그의 수많은 와인 메이킹 경험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바로사 와인을 양조하는데 투자했기 때문이다. 바로사 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그는 바로사밸리의 쉬라즈가 표현해야 하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도 세인트 할렛의 쉬라즈는 Master of Wine의 자격시험에 바로사 쉬라즈의 대표로 출제되고 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St.Hallet Butchers Cart Shiraz

Sister's Run Wines

시스터스런 와인즈

맥라렌 베일에 중심을 두고 있는 시스터스 런. 이들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적이며, 색다른 개성이 돋보이는 와인을 양조하고자 한다. 특히 재능 있는 젊은 와인 메이커라는 호평을 받는 엘레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와인은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이다. 나는 와인에서 좀 더 자유롭게 캐릭터를 보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스터스 런은 맥라렌 베일뿐만 아니라 이든 밸리에도 포도밭을 확장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수입사 비노킴즈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Epiphany McLaren Vale Shiraz

BRONZE Old Testament Coonawarra Cabernet



오너 엘레나 브룩스



2017 와인메이커 오브 더 이어에 선정된 김 토즈너

Teusner

토즈너

2001년 김 토즈너(Kym Teusner)와 Mick 페이지(Mick Page)가 바로사 밸리에 설립한 토즈너 와이너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와인을 만들자'는 목적 아래 모든 작업의 일부는 손으로 직접 진행하고 있다. 수확할 때 한 송이 한 송이의 색상, 당도, 향이 최상의 상태인 포도를 수확하고 바로사 페루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과하게 토스팅하지 않은 오크통에서 와인을 숙성하는 등 포도와 페루아 본연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품질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수입사 비케이트리레이팅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Teusner Wark Family Shiraz

Wakefield Taylors Family Wines

웨이크필드 테일러스 패밀리 와인즈

1969년 빌 테일러(Bill Taylor)와 그의 아들 빌(Bill)과 존(John)이 함께 클레어 밸리에 설립한 와이너리로, 3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1973년 첫 빈티지인 테일러스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Australian National Wine Show>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클레어 밸리를 대표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와이너리로 성장했다. 또한 'Australia's First Families of Wine' 협회의 멤버로서 이 협회에 속한 12개의 와이너리들과 함께 고품질의 와인을 선보인다. 수입사 미수입, 더바인컴퍼니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Masterstroke Cabernet Shiraz
- SILVER** Taylors Special Release Shiraz
- SILVER** Masterstroke Cabernet Sauvignon
- SILVER** Masterstroke Shiraz
- SILVER** Jaraman Cabernet Sauvignon
- BRONZE** St Andrews Chardonnay
- BRONZE** The Visionary Cabernet Sauvignon
- BRONZE** St Andrews Cabernet Sauvignon
- BRONZE** St Andrews Shiraz



웨이크필드 와이너리의 가족들

와이너리 전경



위라위라 와이너리



Wines By Geoff Hardy

와인스 바이 제프하디

1980년 호주 남쪽에서 설립된 와인스 바이 제프 하디는 호주의 가장 유명한 와인 농장주들 중 한 사람인 Hardys의 5대 자손, Geoff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경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들은 증조부 토마스 하디가 영국에서 이주한 1850년대 초부터 호주의 프리미엄 해안 지역인 맥라렌 베일에서 포도밭을 가꾸고 있으며 호주 와인 산업을 이끄는 가족 소유이자 가족 경영 와이너리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수입사 가자무역

수상 와인리스트

- BRONZE** K1 Cabernet Sauvignon

Wirra Wirra Vineyards

위라위라 빈야드

위라 위라는 1894년 맥라렌 베일에 문을 열었다. 1969년 번 스페로우(Vern Sparrow), 그레그 트로트(Greg Trott), 로저 트로트(Roger Trott)가 뜻을 모아 재건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위라위라는 호주 토착어로 '유칼립투스 나무속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와이너리 주변이 온통 유칼립투스 나무로 덮여 있어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매사 진지한 자세로 양조에 전념하며 즐거움을 가지고 와인을 빚고 있다. 수입사 엘비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Woodhenge Shiraz
- BRONZE** Church Block

상위 7% 백악질 토양의 미네랄리티와
해발 1400m 안데스 산의 위대한 표현력



PYROS VINEYARD LIMESTONE HILL MALBEC 파이로스 라임스톤 힐 말베

집중된 아로마가 돋보이며 붉은 과실과 야생허브, 은은한 꽃향이 좋다. 목직하고 부드러운 탄닌에 산뜻한 산도와 미네랄감이 돋보인다. 시간이 지날 수록 견결이 쌓인 복합미와 진한 여운을 느낄 수 있다.

OTHER TOP SCORES



PYROS SINGLE VINEYARD BLOCK NO.4 MALBEC

파이로스 싱글 빈야드 블록 넘버포 말베

강렬하고 짙은 보라색, 검은 과실과 허브 아로마, 신선한 산나무향, 우아한 복합미와 정제되고 기분 좋은 질감, 깊고 인상적인 피니쉬. 페데르날 밸리 최고의 페루아 블록 NO.4의 말베로 빛은 명품 싱글빈야드 말베 와인

OTHER TOP SCORES



PYROS WINES

VALLE DE PEDERNAL

